

## 6. 연합한 생명

2019. 6. 14. 이현래 목사

### [요한복음 1:1~11]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람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90세가 넘게 가장 오래 살았고, 교회 후기라고 하는 데까지 살았던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나 서신들이 기록된 수십년 후에 AD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늦게 쓰인 책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말씀이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희랍인들은 로고스라는 것이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실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태인들과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이 둘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까 고민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희랍인들이 들어도 ‘아, 그렇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들어도 ‘아, 그렇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애를 쓴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대단히 알쏭달쏭하고 어렵다.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문제가 된다. 예수를 신이라고 하면 쉬운데 신이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다고 하니까 아주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고 해도 그냥 사람으로서 한 분이라고 하면 쉬운데,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이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맹목이다. 그냥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지 우리 속에 합리적으로 이해된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순전히 교리를 정리하는 문제라고 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한 존재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다.

짐승들에 대해서는 우리 속에도 짐승의 성분이 있으니까 짐승은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 신은 이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된다.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다면 헛갈린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을 했다. 결과는 결국 확실한 답이 없고, 그냥 황제가 손을 든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 어거스틴도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맹목이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았다. 사람이라는 면에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맨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흠에 불어넣어서 만든 사람이 아담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와 육체가 연합된 존재이다. 아담은 사람이지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엡5:31)라고 했다. 그런데 둘이 한 육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두 사람의 작품이니까 한 육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 와서 한 육체가 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아들이 둘이 한 육체가 된 증거라고 생각한다.

창세기 6장에 천사와 사람이 연합해서 네피림을 낳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창6:2) 여기에서 나온 것이 네피림이다. 천사와 인간이 결합한 것이 네피림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한 것처럼 천사와 사람이 연합한 것이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4) 소위 천사들과 사람이 연합하면 뭐가 나오는데 그것이 네피림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천사와 연합해서 네피림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 네피림이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망해먹은 사람들이 바로 그 네피림들이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유럽을 흔들어서 땅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다. 네피림들은 땅을 폐괴하게 한 사람들이다. 네피림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람들이다.

히틀러는 원래 따르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전 독일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었는데, 독일국민들의 85%가 기독교인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일 히틀러!(Heil Hitler)’ 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다. 히틀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온 것은 땅을 폐괴하게 한 것뿐이다. 가인은 땅을 더럽혔고 네피림은 땅을 폐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무엇이 되는가? 예수가 나온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1:35)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이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하

게 지었다.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낳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천사와 결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던 사람이 나왔다. 아담이 생각하던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네 피림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처럼 섬기게 되었다. 독일 국민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일 히틀러’ 해버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순교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신과 문화적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결국은 침습을 당했다. 일본이 문화적으로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습되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분위기와 환경, 문화를 이길 수가 없다. 중국을 침략해서 들어간 오랑케들이 중원에 들어가면 다 한쪽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자기들 문화가 없으니까 중국의 거대한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고만 것이다. 원나라, 청나라가 다 그랬다. 큰 곳으로 합해지게 마련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눅1:35),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1)고 말씀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예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면 나에게서는 예수가 나오게 되고, 그 나온 생명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뜻인데 거한다는 말을 ‘장막’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장막에 갔다. 그래서 ‘장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라고 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임마누엘을 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에게 보여진 예수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자’였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임마누엘은 ‘우리과 함께하는 자’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와 연합하면 뭐가 되는가? 새사람이 된다. 예수와 내가 연합한 결과는 우리에게서 새사람이 나온다.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면서 이렇게 된 목적은 새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사람은 예수와 내가 합해진 데서 나온 결과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닦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더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옛사람은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낳은 사람이 옛사람이다. 더군다나 천사와 사람이 결합한 사람이 옛사람이다. 우리는 새사람이 필요한데 예수와 결합하면 새사람이 나온다.

요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연합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나와 예수가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또 그렇다면 예수와 연합하면 뭐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연합하면 새사람이 나온다. 로마서 6장의 목표는 새사람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살기위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새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 새사람이 안 된 것은 아직 예수와 연합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덕성도 좋아지고 품성도 좋아지고 했더라도 예수와 연합해서 나온 것과 내가 스스로 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세상에서도 새사람이 된 사람은 많다. 어떤 동기가 있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다.

내가 살았던 곳에 녹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다. 그곳에 부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했다. 어촌이고 양식이 없으니깐 그 부자에게 가서 양식을 빌려왔다. 옛날에는 장리쌀이라고 해서 이자가 배가 되어서 한 가마니를 빌리면 가을에 갚을 때 두 가마니를 갚아야했다.

그곳이 어촌이니깐 여름이 도미 주산지이다. 그 사람은 쌀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도미로 받아 일본으로 무역을 했다. 꿩 먹고 알 먹고 했다. 2배로 도미를 받아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니깐 그 사람만 부지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다. 해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도 빚을 갚기에 바빴다.

그런 곳이었는데, 6.25전쟁 때 동네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발에 돌을 달아서 바다에 나가서 빠뜨렸다. 고양이를 죽일 때 그렇게 한다. 고양이를 없애려면 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죽는다. 꼭 그와 같이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발에 묶여있던 돌이 빠져서 살아나왔다. 그러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 주던 양식을 이자가 없이 주었다. 봄에 주면서 기왕 돔을 잡아서 팔 것이면 나에게 팔라고 했다. 어민들이 빚이 없이 잡은 돔으로 돈이 되니까 어민들이 잘 살게 되고, 그 섬 자체가 아주 평화롭게 되었다. 잘 먹고 잘살게 되었다.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되기 어렵다. 굉장한 변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것과 예수와 결합해서 변화된 새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새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와 내가 결합해서 낳은 사람이다. 낳은 결과이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는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엡5:31)라고 했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가? 안 된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는데, 한 육체가 되는가? 아무리 결혼생활을 오래해도 남남이다. 맞느냐? 틀리냐? 금슬이 좋은 사람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나고, 아내는 아내이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안 된다.

그런데 아기는 하나이다. 둘 사이에 나온 아기는 하나이다. 그것이 새사람이다. 새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새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분과 내가 연합하면 새사람이 나온다. 교회는 새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다. 새사람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하는 것도 새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고 누가 갔는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갔다.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에게서 낳은 사람, 새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구성원이 된다.

결혼식 때, 하나님이 짝 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한다. 이혼하고 싶어도 그 말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을 나누면 이제 죄짓는 것이니까 이혼을 못하는 사람도 많다. 재주껏 잘살아서 다음 세상에 또 만나도 당신하고 또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둘이 하나는 아니다.

인간의 고독이 거기 있다고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죽을 때 혼자 죽으니까, 같이 죽을 수 없다. 같이 약 먹고 죽어도 같이 죽은 것이 아니다. 따로 죽은 것이다. 다 개별자이다. 그래서 외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이다.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결혼한 아내는 자꾸 남편을 들볶는다.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들볶는다. 남편은 아내에게 너는 왜 내 말을 잘 안 듣느냐고 뭐라 한다. 그것이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 전혀 외로움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밥 먹고 잘 사는데 외로울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 것도 외로움이 없어도 그것이 외롭다고 한다. 본질적으로 외롭다고 한다. 단독자이기 때문이다.

새사람만, 나와 예수와 결합한 사람, 연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다. 사람은 혼자 사람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을 지어놓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 혼자 사람이 아니다. 여자도 혼자서 사람이 아니고, 남자도 혼자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이렇게 특이하다. 혼자서 사람이 아니다. 사람 인(人) 자가 막대기가 두 개다. 둘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말인데, 둘이 합해서 한 사람이다. 참 이상하다. 묘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예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까지 내려온 일을 생각해보면 쉽다.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낳은 사람이다. 그러면 된다. 뭐가 모자라는가?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낳은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눅1:35),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마1:21), 혹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마1:23)고 말했다. 나는 예수라는 이름도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나에게 꼭 필요한 이름이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보니까 그는 임마누엘이시고 예수고 그렇다. 구원자다. 내 집이라는 말이다. 내가 거할 집이다.

옛날에 예수를 내 안에 모시려고 하니 정말 안 되었다.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안 된다. 지금도 계속 모시고 있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안 되었다. 그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때는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내 안에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모실 수 없는 분이였다. 이제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깐 그가 내 장막이 된 것이다. 그렇게 안전한 것을 내가 외출하고 와도 내 집은 내 집대로 있다.

작년에 내가 잠시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그 집은 집대로 그대로 있었다. 마지막 깨어날 때 참 이상한 것은 딱 우리 집이 보인다. 비몽사몽간이지만 아주 잘 단장되어서 누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를 해놓았는가 하고 생각했다. 늘 속으로 칠을 좀 다시 발라야 되고, 검은 것 좀 닦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본 집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정원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집이 보였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그 집은 그대로 있었다. 나는 죽었다 살았지만 집은 그대로 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도 예수만 그대로 있으면 된다. 왜? 집이 항상 있으니깐, 내가 있을 곳이 있으니깐.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할 수도 없지만 추구하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경이롭고 놀라운 분이기도 해도 내 집이 되지는 못했다. 내가 항상 있을 곳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런 분을 당연히 내 안에 모실 수도 없다.

가깝고도 먼 당신인가? 멀고도 가까운 당신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늘 부족한 점이다.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항상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뭘 하겠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요즘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것이 정말 못 말리는 일이다.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은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1:35)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손수로 보더라도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의 행적은 그만두고라도 다 그만두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 뭐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일부러 요셉에 대해서 붙이면서 아직 약혼을 했지만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동정녀라고 한다. 요셉과 동침했으면 하나님 아들이 못 될 것인데,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었다. 그래서 예수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그 다음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요셉의 아들들이다.

나대로 정리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하고 싶으면 취하시고 아니면 버리면 된다. 제대로 정리한 것이다. 어제 밤에 고민을 많이 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쉽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더라. 그래서 계속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다. 오! 하나님과 결합해서 낳으면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다른 의미로도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여간 출생에서부터 그는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것이 맞다.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선전했다. 로마서를 볼 때도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말했다고 했다. 사도들은 다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하나님 아들로 전해졌다. 우리가 그 분들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하여간 나대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희랍인들에게 흔히 가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로고스라는 개념을 슬쩍 바꿔서 인격화시킨 사람이 사도요한이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슬쩍 인격화시킨다. **“말씀이 육신(육체)가 되어.”**, 희랍사람들은 이것이 없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런 로고스는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실재)가 충만하더라.”**(요1:14),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1:16), **“본래(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

여기 보니까 세상에 계셨는데 몰랐다는 것이다. 어떻게 세상에 계셨는데 우리가 모를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요1:2,3),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요1:11)라고 했다.

이것이 선재를 말한 것인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니까 선재를 말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데아 사상이다. 책상이 있기 전에 책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 속에 있다. 그것을 가지고 책상을 만든다. 그 아이디어 때문에 책상이라고 생긴 것을 모두 책상이라고 이해한다.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게 못한다. 자기한테 입력된 것만 책상이다. 똑같은 컵을 갖다 놓고 컴퓨터 보고 컵이냐고 하면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입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안다. 납작한 컵이든 네모난 컵이든 컵의 용도로 만들어진 모든 그릇을 보고 컵이라고 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도 그럴듯하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요1:2,3)** 이것은 창조라는 말과 좀 다른 것 같다.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made’라는 말을 썼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통하여’라는 말도 된다. 영어로는 ‘through’이다. 그를 통하여지어졌다. 만들어졌다고 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삶이 많다. 그가 없었으면 없을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많다. 만들어진 것이 많다. 우리를 볼 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사람이다.

사람이 예수를 만난점에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산다. 환자를 고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다. 그는 평생 사역이 환자 고치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목사님이 요즘에는 자기도 병이 들어서 옛날처럼 못하지만 지금도 설교를 하면 똑같다. 말씨는 똑같은데, 병 고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평생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늙고 병들고 해서 안 된다. 어디서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병자 고치는 것이 제일 많다. 기독교 세계에서 은사, 능력이라고 하면 병 고치는 것이 제일 많다. 또 실제로 병이 고쳐진다. 나도 한 번 보았다. 한 번 그런 것을 보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하겠는가? 그것이 또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유식하고 잔소리하는 이런 사람도 능력이 딱 나타나면 꼼짝 없이 무릎을 꿇는다. 별 수 없다.

처음에 목회 하러 나가니까 그것이 너무 아쉬웠다. 나는 왜 이것을 못하는가? 은사나 능력이 되면 전도하기 쉬울 텐데. 우리 교회가 넘칠 텐데, 했다. 그런 생각이 나니까 그것을 얻어 보려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 안 주신 것인지 내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는데 안 주셨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것을 받았더라면 나는 거기서 머물렀을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병 고치는 분만 아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를 뻔 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만나니까 만유를 포함한 그분을 알게 되었다. 나를 포함한 것이니까 만유를 포함한 것이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거기에 없었다. 그 예수 안에는 내가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니까 비로소 거기에 내가 있더라는 말이다. 만일에 그것을 놓쳐버렸더라면 나는 나의 영원한 집을 잃어버릴 뻔 했다. 내가 영원히 거하는 곳, 그곳을 잃어버릴 뻔하였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헤매고 예수를 찾아서 돌아다닐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가 있을 곳을 발견하면, 있는 곳을 발견하면,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 내 집이 있는데 남의 집에 가겠는가? 술이나 먹으면 모르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지 제정신으로 남의 집 아파트를 두드리겠는가?

내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구나. 시편 23편에 시를 약간 내가 개사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시23:1) 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거하리로다).”**(시23:6) 하는 것이 마지막 구절이다. 여호와의 집에 무슨 수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가? 어디 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신이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내 집이 발견되니까 영원히 그 집에 거한다고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당당하게 할 수 있다. ‘네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내 아버지 집이다. 이것도 남이 못 알아듣는다. 나도 어렵지만 남을 보고 너 고향이 어디냐? 돌아갈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내 아버지집이 어딘 줄 아는가?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요14:5)라고 했다.

이 말은 주여, 정말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다. 주여, 내가 못 알아듣겠나이다. 좀 쉽게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쉽게 말해 준다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요14:6) 하니까 쉽게 말해준다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14:8)라고 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다.

차라리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을 괜히 질문을 해서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쉽게 대답할 때가 있다. ‘내 집이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때가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쉽게 대답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다.

왜 유태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겠는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려고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것이 의식이었지만 물어보면 거침없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성막에 계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디라고 할 수 없다. 모르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모른다. 내가 이런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면 어찌 하겠는가? 내가 용궁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는가? 별주부가 토끼에게 와서 나는 용궁에 산다고 하니 거기 속아서 물속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겠는가? 모르고 가보니까 토끼가 살 데가 못되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나왔다는 것이 별주부전이다.

가만히 보니까 용궁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 사정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간을 나무에 걸어놓고 왔다고 한다. 다시 육지에 나가서 간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간이 없다고 하니 육지에서는 그러냐고 해서 도로 업어다가 육지에 내려놓았다. 토끼가 하는 말이 ‘야, 이 어리석은 별주부야, 간을 빼 놓고 다니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는 깡충깡충 뛰어서 도망갔다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면 속는다.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면 ‘그런가?’ 한다. 천당이 아니고는 다른 데가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나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집이다. 그 집은 넓고도 넓다. 너도 포함되고 나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다. 언제든지 오면 된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만유가 포함된 자리이다.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다.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충성심이 좋거나 안 좋거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그 자리는 다 들어올 수 있다. 그 집이 얼마나 넓은 집인가! 집이 좁아서 못들어갈 일도 없고, 몰라서 못들어갈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집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부르는데, 집이 있어야 부른다. 불러서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은 사람을 부르면 교회로 안내한다. 교회로 오라고 한다. 그 말은 집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에게 여기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거기 와서 걸린 사람도 있다. 좋은 집이라고 하면 좋지만 교회 와서 보고 걸린 사람도 많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두고 아버지 집이라고 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야 내 아버지 집이 안 되겠는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3)고 하셨다. 그 집은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들어오는 집이 아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언제나 들어갈 수 있다. 이보다 더 쉬운 구원이 있겠는가! 거기에만 인도하면 된다.

미국에 갔다 놓으면 영어는 한다.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미국에서 배우면 훨씬 쉽다. 한국에서 10년 공부할 것을 미국에 가서 1년만 하면 된다.

나 같은 사람도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살면 나 같은 사람이 되기 쉽다. 집이 그러니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을 거기로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30년을 교회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안 되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멸망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불러 놓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밖에 안 된다. 하도 안 되면 말이다.

그런데 이 집은 만민의 집이다. 만민이 있을 수 있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 안, 그 운명 안, 그 생명 안, 이것은 그리스도 안이다. 'In Christ',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Keyword가 'In Christ'이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in Christ)' 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집이 없는 고아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알아서 가끔씩 전화를 한다. 그런데 교회는 오지 않고 혼자 신앙하는 사람이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 번은 바쁘고 해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교회를 안 들어오면 헛일이라고 잘라서 말해버렸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전화를 안 한다.

그런데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적어 두지 않아서 찾을 길도 없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청주 사람인데 나도 전화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길이 없다. 나는 교회로 들어오라고 한 말이지 그 사람에게 영원히 나가라는 말은 아니었다. 말을 잘못해서 놓쳐버렸다. 그 사람은 교회로 안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데 누구라도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갈 집이 있다. 알기만 하면 못 나간다.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고 마음대로 하는 집이 아니지 않은가? 내가 거기에 있다. 다른 집은 또 없는데 내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겠는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2,3)**

이 말은 참으로 알기 어려운 말이다. 우리 생활에는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주 많다. 전혀 없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없는 것이 많다. 지금 없는 것이 많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라.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 세계에 와 있다. 그렇게 밖에는 모르겠다.

선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또 선재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겠는가? 선재했다고 해도 모른다. 내가 어디 있었다는 것도 모른다. 관상철학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아는가? 모르지 않은가? 그러니까 적당히 거짓말을 해도 속는다. 당신이 좋은데 있었다고 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도 윗줄에 태어나서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들으면 기분이 좋다. 윗줄에 태어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4살 때 백일해에 걸려서 죽을 뻔 했다고 한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 할머니가 이 아이는 윗줄에 태어나서 안 죽을 거야, 오늘 저녁만 넘어가면 살아, 그랬다고 한다. 과연 그

날 저녁을 넘기고 살았다고 한다. 그때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던 때다. 기분 좋은 말이다. 안 됐더라도 기분이 좋은 말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오셨다. 안 죽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그가 없이는 없을 것이 아주 많다. 그런 것은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안 되겠는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내가 나를 봐도 그가 없이 된 것이 별로 없다. 이것이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많을수록 내가 부유하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가난한 것이다. 할 말도 없다. 누구에게 가서 자기를 말할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장사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야 사람들이 호감을 가진다. 나는 장사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벌었다고 하면 누가 장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우리의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충만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열심히 자랑할 필요가 있다.

나도 요즘에는 염치 불구하고 자랑한다. 듣든지 안 듣든지 자랑한다. 자랑하니까 기분이 좋다. 모르던 것도 알게 된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스스로 이렇게 알아진다. 아,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진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열심히 자랑하라. 이것은 자랑해도 도둑질해 가지 못하니까 도둑질해 가라고 내놓아라. 문 열어놓고 놓아두면 도둑질해 가면 더욱 더 좋다. 누구는 성경책을 훔쳐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우리의 좋은 것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은 산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내놓아도 돈 자랑하는 것처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돈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미워한다. 지식을 자랑해도 미워한다. 뭐든지 자랑하면 안 좋아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랑해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도 좋고 그렇게 할수록 나는 더 겸손해진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말할수록 나는 더 겸손해진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누이 좋고 매주 좋다는 식으로 다 좋은 것이다. 듣는 사람보다도 알고 보면 전하는 사람이 더 좋다.

어제 강원도에서 몇 분이 왔다. 그리고 목사님도 한 분 오셔서 잠깐 보고 간다는데 잠깐이 되는가? 이야기가 계속 되어서 아내가 밀어내서 갔다. 자랑을 하려면 끝이 없다. 오늘도 자랑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다 갔다.

이 정도로 하자. 더 이상 모르니까 이 정도로 하겠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면 다르지 싶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